

품질제일주의로 고객 만족 실천

AFC 시스템으로 품질 향상 기대



◀ 현석원
동일알루미늄(주) 대표이사

가볍고 광택이 좋은 금속인 알루미늄 박은 미려한 광택으로 포장재 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식품과 약품류에 알루미늄 박이 적용돼 포장하면 자외선 차단을 비롯한 반사효과로 인해 내용물 보호에 우수한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알루미늄 박 업계는 알루미늄의 대부분이 최종소비재가 아닌 중간 원자재라는 성격때문에 관련 산업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수요자로부터 품질적인 측면과 신속한 납기를 요구받는 상황이다.

국내 알루미늄 박 업계는 삼아알미늄, 롯데알미늄, 대한은박지공업의 선발 3사로 유지되어 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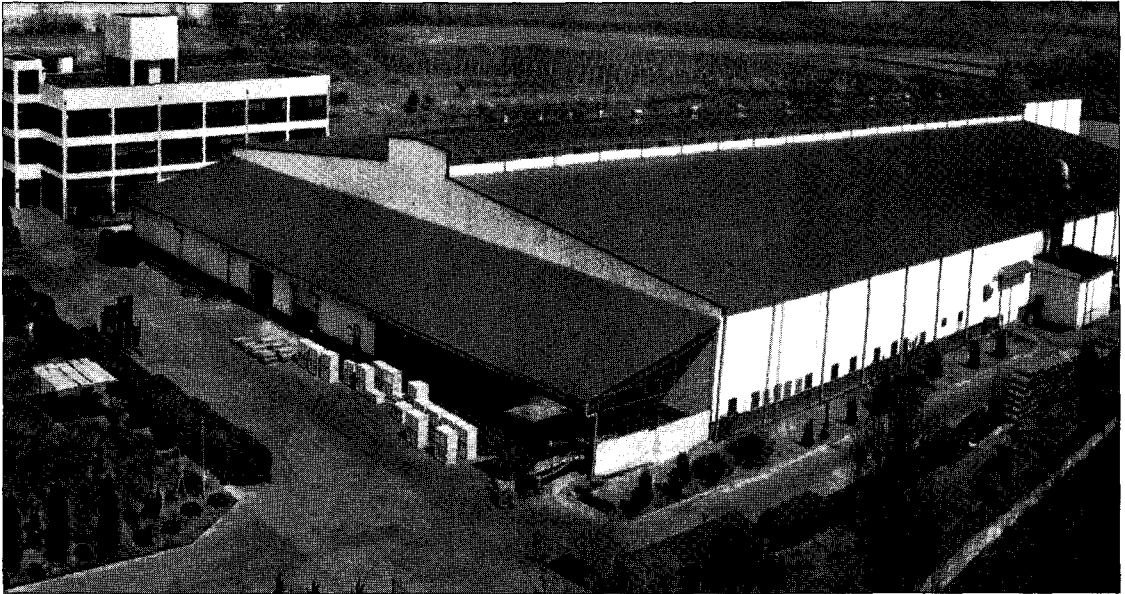
으나 지난 1980년대 말 후발업체의 시장 참여로 현재 5~6개 업체가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88년에서 95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씩 성장해 온 알루미늄 박 업계는 지난 96년부터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 IMF의 영향으로 위축되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2년 상반기부터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여 2003년 올해 국내 박 업계는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 알루미늄 박 업계 가운데 고객 만족을 위한 품질 제일주의를 모토로 최신 생산설비와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꾸준한 발전을 기하고 있는 동일알루미늄(주)(대표이사 현석원)을 찾았다.

동일알루미늄(주)은 지난 1989년 4월, '좋은 물건' '정산을 통한 원가절감' '고객만족'이라는 기업 방침으로 설립된 이래, 3년 뒤인 1992년 천안공장 준공 허가를 받으며 압연 1, 2호기 가동을 개시, 연간 생산능력 12,000M/T의 설비를 구축하며 비로소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1989년 당시 15억원이라는 자본금으로 창립



▲ 충남 천안에 위치한 동일알루미늄(주) 본사 전경

된 동일알루미늄(주)은 1994년 COATING M/C를 증설했으며 제32회 무역의 날 1,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꾀했다.

현석원 사장은 “지난 96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이듬해 겪게 된 IMF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고 털어놓는다. 국내 여느 기업이나 IMF의 위기가 있었겠지만 동일알루미늄(주)에게도 IMF는 시련으로 다가왔다.

현 사장은 “노사문제를 해결하고 임금동결과 가격 다운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며 “진정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따라와 준 직원들 덕분이었다”고 밝혔다.

동일알루미늄(주)은 현재 천안공장과 서울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200여명의 직원들이 애사심을 갖고 동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 사장은 천안공장에 항시 상주, 고품질 생산을 위

해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이런 결과 동일은 1998년 중소기업 인증센터로부터 국제품질규격 ISO 9001 인증을 획득했으며 2000년도 제37회 무역의 날 3,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최신설비 바탕으로 매출 증대 계획

동일알루미늄은 최신 성능의 독일 Achenbach 압연기 2대와 Hercules 롤 연마기를 핵심 설비로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수치제어 시스템을 장착한 롤 연마기는 압연과정 중 발생하는 롤 표면의 흠 및 마모를 제거, 롤을 표면을 균형있고 매끄럽게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압연 품질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4단 비가역식인 동일의 압연기는 x레이에 의한 정밀한 두께 측정과 전폭의 형상을 균일하



◀ 동일알루미늄(주)이 보유하고 있는 압연기

계 조정해주는 전자동의 AGC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2002년에는 막대한 투자자금으로 AFC 디지털 전자장치 시스템을 도입, 품질 완벽주의를 펴하고 있다.

현석원 사장은 "AFC 시스템의 도입으로 올 2003년 지난해 보다 약 30% 신장된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용제 생산 주력, 수출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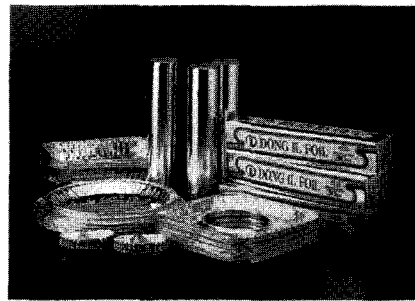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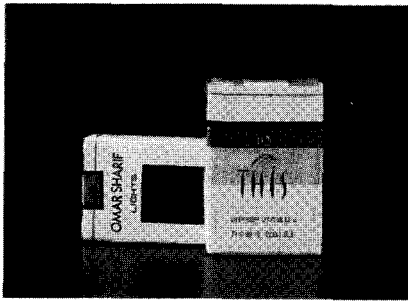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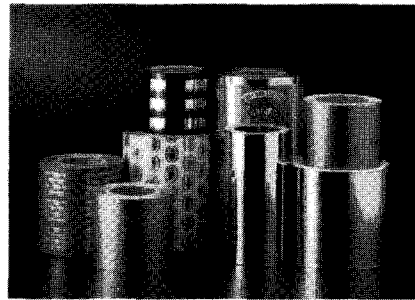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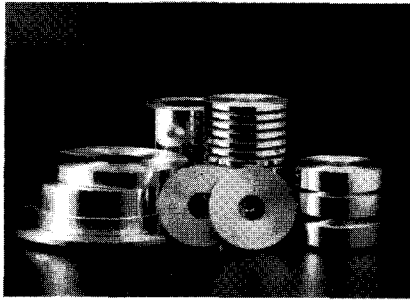
동일알루미늄(주)은 축적된 경험과 최첨단 설비시스템으로 포장, 건축, 자동차, 전기, 전자, 냉동기 등 공업용제에서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좋은 제품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동일은 타 알루미늄 박 업체가 포장용 제품의 역사가 깊은데 반해 산업용제에 강점을 나타내고 있다.

연포장 가공 제품의 경우 국내 공급이 많고, 경쟁이 치열한 것을 감안해 수출에 강점이 높은 산업용제에 주력하고 있다는 현석원 사장.

현 사장은 동일의 고객인 연포장 관련 업체와 경쟁을 한다는 것은 타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동일은 연포장 가공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채 자긍심을 갖고 호일 생산에만 주력할 것"이라고 피력하면서 이러한 동일의 운영 방침이 업계에 조금이라도 일익을 담당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립 당시 월 1,000톤을 생산하던 동일알루미늄(주)은 품질제일주의에 입각한 정신으로 끊임 없이 후공정설비 시설을 개선·보완하고 부단한 기술개발에 주력한 결과 창립 당시의 생산량에서 2배 가량 신장한 월 2,000여톤의 알루미늄 박 생



▲ 품질제일주의를 바탕으로 생산된 동일알루미늄(주)의 제품들

산을 이뤄냈다. 뿐만 아니라 생산량 중 60% 이상을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각국과 호주 지역에 수출,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우수고객 인증서를 받았으며, 올해 2003년에는 5,000만불 수출 목표를 세우고 있다.

현 사장은 “고객들로부터 품질이 좋아졌다는 호평을 들을 때마다 동일맨으로서의 뿌듯함을 느낀다”며 “무엇보다도 애사심을 갖고 일하고 있는 동일의 직원들 모두가 발전의 원동력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석원 사장은 향후 알루미늄 업계의 문제점 중 하나로 턱없이 낮은 중국 호일의 수입문제를 말하면서 호일업계가 상부상조하는 정신과 정당한 가격 경쟁을 통해 호일업계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앞으로 동일알루미늄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생각과 연포장 업체를 비롯한 알루미늄 박 업계에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박 생산에 주력할 것이며 수출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수요업체인 연포장업체와는 경쟁하지 않겠다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고객 품질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일알루미늄(주).

동일알루미늄이 2003년 수출 5,000만불 달성이라는 목표와 함께 국내 알루미늄 박 업계과 연포장업체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 본다. ☐

박초혜 기자